

“미국의 새정부와의 관계가 경제성장의 관건이다” 이재명 당대표, 대기업 경제연구소, 경제단체와 대미 통상·산업정책 전략을 위해 머리를 맞대

- ✓ 5일(수) 오전 10시 30분, 이재명 당대표 주관 대미 통상·산업정책 경청간담회 개최
- ✓ 경제외교, 통상교섭, 산업정책 등과 관련한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
- ✓ 민주연구원이 당내 경제 관련 위원회와 상임위원회와 함께 대안 모색

5일(수),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사장 이재명, 원장 이한주)은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맞아 주력 수출산업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트럼프 2.0 시대의 통상·산업정책 경청간담회」(이하 「경청간담회」)의 종합토론을 개최한다.

이재명 당대표가 주재하는 이번 경청간담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대를 맞이한 경제외교, 통상협상, 산업정책의 과제를 기업 및 경제계와 함께 모색한다. 이번 간담회는 1월 13일(월) 반도체 산업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2차 전지, 자동차, 중소·중견기업과 차례로 간담회를 가진 결과를 종합하는 자리다.

행사를 주최하는 이한주 원장은 “2기 트럼프 정부에서 도입될 보편관세와 미·중간의 무역 전쟁 격화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적하면서 “트럼프 2.0 시대의 높아진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서 4회에 걸쳐서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산업, 중소·중견기업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제 대안을 모색해야할 시기”라며 이번 간담회의 의미를 지적했다.

기업 측에서는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소장, 송경열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 원장, 김견 HMG경영연구원 원장이 참석하고 경제단체 측에

서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해서 경제계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경청간담회에 전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책을 담당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주당 내의 주요 경제분야 특별위원회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 국회의원), 국가경제자문회의(의장: 홍성국 전 국회의원)가 참여하며, 핵심 상임위원 외교통일위원회(간사: 김영배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간사: 김원이 국회의원)도 함께 대미통상 및 산업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임기 당시 추진하던 ‘미국 우선주의’ 경제·무역 기조를 유지하며,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확대하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세심히 분석해 우리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라며 첫 번째 경청간담회 축사를 통해서 미국과의 경제외교가 우리 경제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2.0시대의 통상·산업정책 연속경청간담회

경제는 민주당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종합토론

2월 5일(수) 오전10시30분

국회본청 당대표회의실 (205호)

좌장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참석자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소장

송경열 SK경제경영연구소 소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 원장

김 건 HMG경영연구원 원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언주 국회의원 (민주당 미래성장위)

홍성국 의장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김영배 국회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원이 국회의원 (산중위 간사)

강훈식 국회의원

김병욱 전 국회의원

| 주최 | 민주당 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